

무인농업시대 '성큼'

농진청, 인공지능 위성 항법시스템 활용 '자율주행 트랙터' 산업화 기반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영상인식 기반 트랙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농기계 업체와 함께 고정밀 측위시스템(RTK-GPS)을 활용해 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자율주행 트랙터 산업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고정밀 측위시스템(RTK-GPS)이란 LTE 통신망 등을 사용하는 실시간으로 위치 보정을 통해 정밀한 측위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농진청은 지난해부터 농업기술 혁신을 위해 농업의 디지털화와 첨단농기계, 농업로봇 개발 시설재배 기술 혁신, 현장 밀착형 지역농업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발된 기술은 고가의 위성 항법시스템(GNSS)을 대체할 인공지능 기반 영상인식 트랙터 자율주행 기술이다.



자율주행 트랙터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이 기술은 경운할 때 생기는 흙 부수기(쇄토) 작업 여부를 트랙터 앞에 장착된 카메라로 찍어 심층학습(딥러닝) 기술로 분석해 경운된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의 경계를 검출한 후 미리 정해진 주행 기준선과 비교해 발생한 오차만큼 트랙터를 조향 제어하는 기술이다.

트랙터 전면엔 장착된 카메라로부터 얻은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간 결과, 작업속도 3km/h 시 작진 주행 경로 오차는 ±9.5cm 이

내었다. 이는 운전자가 주행 시의 오차 ±21.2m보다 매우 작은 수치다. 이 기술은 고가의 위성 항법 시스템보다 합리적인 예산으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고, 영상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물을 인식하거나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쉽다.

농진청은 이번에 개발된 기술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기술 완성도를 높여 관련 업체를 통해 실용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농기계 업체와

함께 고정밀 측위시스템을 활용한 트랙터 자율주행 고도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고정밀 측위시스템을 활용해 사전에 작업 경로를 설정하고 설정된 경로를 따라 작진 주행과 선회를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다. 농기계 업체는 작진 자율주행 기술을 우선 트랙터에 적용해 농업 현장에 보급하고, 선회, 장애물 인식과 회피 등 고도화한 자율주행 기술을 산업화 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스마트개발과 강금춘 과장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이 농촌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산·관·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이나 지원 사업, 검인증 기준 등을 조기에 마련해 첨단농기계 산업화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산업화가 자리 잡는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무인 농업시대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했다.

농기계업체의 최종인 책임연구원은 "농기계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첨단농기계 산업화 기반을 마련해 준다면 농가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도쿄올림픽 홈쇼핑 매출 최고 45% ↑

선수들 활약으로...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 롯데홈쇼핑

배구·야구·축구 몰린 지난달 31일 매출 큰 폭으로 올라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단의 활약으로 후원을 맡은 유통업체도 매출 상승 효과를 보고 있다.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사인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31일 오후 7~10시까지 주문량이 1주 전 같은 요일 대비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날은 올림픽 국가 대표팀 야구·축구·배구 경기가 동시에 열렸다.

롯데홈쇼핑이 당일 경기 종료 후 선보인 '하디스 남성 드로즈'는 남성 고객이 일반 방송 대비 약 20% 늘어 총 6000세트가 팔렸다.

이처럼 남성 상품과 간편식을 집중 편성한 결과, 올림픽 기간인 지난달 28일부터 8월3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TV홈쇼핑 전체 매출이 15% 이상 증가했다.

구기종목 경기 시간에 판매한 제품은 평소보다 주문량이 2배 이상 늘었다.

올림픽 축구 운두라전이 있었던 지난달 28일 오후 5시30분 직진 선보

인 '쌈네 순쌈대리살'은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적을 거뒀다.

롯데홈쇼핑은 남은 올림픽 경기 기간 동안 주요 경기 시간에 맞춰 인기 상품을 집중 편성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은 오는 2024년까지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사로 지정돼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선수단을 지원하는 마케팅에 나서려 한다.

이 회사는 모바일 앱에서 올림픽 선수단을 지원하는 '국가대표 맛골 응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2일부터 8월3일까지 1만여명 넉게 참여했다.

신성진 롯데홈쇼핑 마케팅부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선전으로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식 후원 효과와 시너지를 보았다"며 "앞으로도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사로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국내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이

농산물 종자 불법 유통 여전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는 등 종자산업법 위반 30곳 적발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모종)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 대상, 유통조사(단속)를 실시해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유통조사는 매년 종자·묘 유통조사계획에 따라 농산물별 파종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씨감자 미(未)보증, 종자업 미등록, 품질표시 미표시 등으로 품목별로는 씨감자 11개소(37%), 파수묘목 7(23%), 채소 7(23%), 화훼 2(7%), 기타 3(10%) 순이며, 업종별로는 종자판매상 26개소(87%), 종자업자 3(10%), 육묘업자 1(3%) 순이다.

적발된 업체 중 19개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11개소는 과태료(10만원~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농산물 종자·묘(모종) 관련

분쟁 31건은 작물 시험·분석, 현장조사, 전화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했다.

무 발아 불량 의심 확인을 위한 발아율 검정, 수확 품종 진위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고, 토마토 착과(과실 달림) 불량 원인과 쪽파 발아·생육 불량원인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참고로 농업인 등은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농산물 종자 또는 묘(모종) 구매내역(영수증 등), 사진 등 입증 자료를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국립종자원에 상담 ☎(064-912-0168~0170)을 요청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은 "앞으로도 불법 농산물 종자·묘(모종) 근절과 종자 분쟁 해결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 유통 및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기자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조회 앱 설치·인증서 없이 가능

'NH모바일아파트대출 2.0' 상담서비스 오픈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호)는 앱 설치, 인증서 없이 누구나 아파트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 조회가 가능한 'NH모바일아파트대출 2.0' 상담서비스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NH모바일아파트대출 2.0은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은행 방문이나 서류 제출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모바일에서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지난 2월 1일에 출시했다.

그동안 NH농협은행에 거래가 없던 고객들은 대출한도와 금리를 조회하려면 계좌개설과 बैं킹 앱 등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대출상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한층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대출상담서비스는 포털검색서비스를 통해 'NH모바일뱅크'에 접속 후 대출매뉴얼에서 1번이면 원하는 아파트의 대출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 바로 가기 버튼을 통해 NH스마트뱅크 또는 올원뱅크앱에서 실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 ☎(1661-3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신협중앙회, 이달 말까지

3차 어부바 캠페인 광고 이벤트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오는 31일까지 3차 어부바 캠페인 광고(지니 팬) 이벤트 3탄을 진행한다.

지난 6월 1일 운여어한 어부바 캠페인 광고에는 신협의 귀여운 돼지 캐릭터 어부바가 지니로 등장해 코로나19 힘든 시기를 겪는 전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유튜브 업로드 2달 만에 615만 뷰를 돌파하고 6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tN 인기드라마 늘기로운 의사생활 2에 어부바인형이 등장하며 광고 및 캐릭터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소아과 의사 안정원(유연석)이 어부바 인형을 여자친구인 장겨울(신현빈)에게 선물하며 둘 사이의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 실제 방송 직후 신협 콜센터로 어부바인형 구입을 묻는 문의가 이어졌으며, 신협은 진행중이던 어부바 인형 증정 개수를 400개에서 1000개로 늘렸다. 이벤트 참여도가 더욱 높아져 신협은 유튜브 이벤트를 연장해 이번 3차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신협의 유튜브 3차 이벤트는 기존 주차별 이벤트에 어부바를 향한 전국민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하는 의미로 N번째 댓글 이벤트가 추가되었다. 먼저 주차별 이벤트는 신협중앙회 공식 유튜브 및 블로그에 '어부바 지니' 댓글로 남기면 매주 인기 만점 어부바인형 1,000개를 증정하는 이벤트이다. 추가된 N번째 댓글 이벤트는 NN61번(예. 6061, 6161, 6261...) 유튜브 댓글 작성자 61명에게 어부바인형과 상품권 5만 원권을 선물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많은 분들이 어부바 캐릭터 및 광고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며 "자랑스러운 모습과 더불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겠다는 어부바의 뜻 역시 공감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보내주시는 신협 브랜드에 대한 신뢰만큼 따뜻한 시민금융 신협이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함께 걷는 꽃길 예금'을 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정재호 본부장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4일 남원 운봉농협을 찾아 장기 우수고객인 김재환 조합원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며, 이 날 김재환 조합원이 직접 상품에 가입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농협상호금융, 연 2%대 '함께 걷는 꽃길 예금' 출시

창립 60주년 맞아... 전북농협, 운봉농협 찾아 장기 우수고객에 감사의 마음 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함께 걷는 꽃길 예금'을 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정재호 본부장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4일 남원 운봉농협(조합장 서영교)을 찾아 장기 우수고객인 김재환 조합원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며, 이 날 김재환 조합원이 직접 상품에 가입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함께 걷는 꽃길 예금'은 농·축협 조합원이면 가입할 수 있는 연 2%대(기본금리+특별우대금리)의 고금리 상품으로 60일간 한정 판매한다. 1인 최대 1천만원까지 전국 농·축협 창구

와 NH로뱅크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고 비대면 채널로 가입 시 추가 금리 혜택이 있다. 판매 한도(6,000억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정재호 본부장은 "60년 간 농협에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시는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상품을 지속해서 농업인 그리고 국민 모두와 함께 하는 100년 농협을 일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1호 가입 고객이 된 김재환 조합원은 "농협에서 60년을 한 결

같이 농사일부터 조합원들의 일상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며, 이 날 김재환 조합원이 직접 상품에 가입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농협은 상품 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의류 관리기, 로봇 청소기 등을 증정하는 대고객 이벤트도 진행한다. 60번째, 120번째 등 매 60번째 가입 고객은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NH로뱅크·스마트뱅킹의 이벤트 페이지 및 농협 고객센터(1661-21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학생들의 진로 탐색·선택 도와요"

전은 장학문화재단

도내 중·고 10곳에

3D 프린터 20대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재)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경우)은 공개 모집을 통해 도내 중·고등학교 10개교에 3D 프린터 장비를 지원한다

4일 밝혔다.

3D 프린터 지원사업은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이 프린터를 지원하고 군산대학교 신화학력단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차 산업 혁명시대 핵심 기술인 3D 프린팅 활용을 통한 도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돕기 위한 미래 비전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도내 중·고등학교 10개교를 선정해 한 학교당 2대의 3D프린터를 지원하며, 기기를 원하는

학교는 오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기재된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사회공헌부(033-250-749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에서는 매년 장학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문화활동 지원사업, 소외계층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JB Deam up 진로코칭캠프 등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